



머리글

정민하 울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함께 걷는 길”

7월은 한 해의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걸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지만, 우리의 삶 안에는 여전히 위로와 인내, 그리고 희망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습니다. 교정사목의 현장 역시 그러한 마음이 더욱 절실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만나는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그 곁에는 가족들의 기다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정성이 있습니다. 교정사목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언제나 길을 잃은 이를 찾으시고, 지친 이를 일으켜 세우시며,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들을 다시 품어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러므로 교정사목은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 있는 하느님의 모상과 회복의 가능성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 매우 작고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문, 한 차례의 미사, 편지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와 꾸준한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은 조용히 스며들고, 닫혀 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문을 열어 줍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7월의 문턱에서 다시 마음에 새겨 봅니다. 교정사목의 길은 누군가의 과거에 머무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섬김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교정사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안에 풍성히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표창장 수여식



5월 29일(금)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총회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본부장 김일호 미카엘,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대표 봉사자 권진 소화테라사에게 소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표창장 수여를 축하드립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 정기총회



5월 30일(토)~31일(일) 대전 정하상교육회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심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일하는 교도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6월 1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우요한 세례자요한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우요한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1코린 3,17)”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가져가십니다.”라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에서 우요한 세례자요한(6월 24일) 신부와 최남식 베드로(6월 29일) 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일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6월 13일(토)~14일(일) 불광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은 범죄 피해자, 청소년과 성인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후원자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목’에 대해 더욱 관심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사례 등,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 가족과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불광동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담장 안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인원이 많아 순번에 따라 미사 참석이 가능하기에 3번 중, 2번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불참한 주일에는 매일 미사 책을 펴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감 되기 전에는 성당에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니다. 냉담 중이라고 해도 졸을 만큼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실 세례를 받은 것이 제 본연의 의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외조부님의 바람에 의해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기에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외가 식구들은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시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어린 마음에 귀찮고, '신어 어딴어?' 라는 불경한 생각에 신앙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외병 중에 할머니를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신다는 말씀에 24년 성탄에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할머니께 전해드렸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와중에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좋았다고 생각했을 뿐, 그대까지도 믿음이 깊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된 후 미사에 참석하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암송하고 저로 인하여 피해입은 피해자분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고, 잠들기 전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조금씩 달라지는 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이해지려는 때에는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을 떠올리며 마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많은 것에 의미가 있고 이를 깨닫기 위해서 저 자신을 더욱 겸허히 하고 지금의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하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처럼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저를 일깨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바쁜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신부님과 미사에 도움을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가를 준비해 주시는 도토리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깊게 박혔습니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들어주시리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신부님께서 고해성사 중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남에게 나는 얼마나 바라왔는가,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만 생각해 보지 말고 내가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 그 말씀들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욱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신 신부님과 미사에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봉사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계속되길 기도드리면서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6. 05. 28.

다니엘 드림

성숙한 아이들의 실패와 도전



엄기홍 제랄도 / 더품다교육공동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간이 비슷한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저는 국민학교 세대) 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한 아이는 아들 셋의 아빠가 되고, 하느님 곁으로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노모를 돌보는 나이가 되어 시간의 빠른 속도를 체감합니다. 노환으로 병원을 오가는 노모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진 자연스러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줄곧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이야기를 선명히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의 속도는 느리고 느립니다. 그렇게 느리게 흘러간 시간의 경험은 소중히 간직되고 또렷이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느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왜 몰랐는지 싶지만, 그 시절 선명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았습시다. 그렇게 느리게 가는 시간을 느끼는 나이만큼 알았고 그만큼 살아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잘 살아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걸맞게 살아냈습시다. 단지 어린 나이에 어울릴만한 미성숙함이 한참 나이를 먹은 지금 돌이켜 그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비난하게 되는 이유라면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돌이켜 보면 그 느린 시간을 살았던 나는 미성숙했고 그에 어울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잘 살아냈습시다. 그런 어린 나이의 나에게 '그래 그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야겠습니다. 너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고 다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함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린 시절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고 잘 해낼 거라고 말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한다는 일은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성숙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변화 속도는 때로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눈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함께 만나고 있는 교육의 동반자 선생님들과 함께 도전해 나갑니다. 첫 시작은 실패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못 하겠다는 푸념을 지나면,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무릎에 힘을 넣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래 나도 이런데 아이들

의 실패와 도전은 얼마나 어려울까? 또 반성합니다. 이 반성 자체가 도전에 대한 성공이라고 위로해 봅니다. 그래 너희들 나이에 맞는 성숙함이 있음을 신뢰하고 너희의 실패와 도전을 응원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나도 똑같은 과정을 옆에서 하고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용된 아이들의 놀라운 성과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검정고시 '5회 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는 도전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도전하기까지 아이들은 여러의 미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그 나이에 맞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살아냅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잘 해내다가도 어느날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성숙하게 되어가던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규칙을 위반한 아이는 만델라 소년학교를 떠나는 조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 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 아이의 실패가 왜 나의 실패로 경험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도전하라고 네 시간과 삶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만큼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비슷한 실패와 도전을 반복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토론해 보자고 제안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 나눕니다. 그런데 왜 잘 안되는지 물어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재미에 몰입하는 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나!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보다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나! 높은 가치보다 안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웬지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웬지 제 어린 시절 아니 사실 지금도 남아있는 제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회를 얻고 싶은 만큼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무릎에 힘을 내고 아이들의 만남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실패할 만남이기도 해서요.

느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나 빠른 시간을 보내는 저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느린 시간을 보냈던 어린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오늘 아이들에게 해주어야겠습니다. 너도 어렵냐? 나도 그렇다!



교정사목에서 마주한 질문들

김영웅 가브리엘 /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의 실습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주변에서 받았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할 때마다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습하는 동안 들었던 질문은 “거기 사람들 무섭지 않아?”,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어?”,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돌봐야 하지 않아?” 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물음들이고, 저에게도 큰 묵상 주제가 되어 실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물음들을 토대로 지난 실습 기간을 돌아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까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 주고 반항심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마지못해 성당으로 이끌려 갈 때면, 성당 어른들은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에게 ‘영웅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니 금방 돌아올 거야. 누구든지 그런 때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며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애정을 담아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과 행동들은 무심한 척 듣고 시큰둥하게 대답하던 사춘기 시절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더 고집부리긴 했지만, 마음을 조금씩 고쳐먹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를 품어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느꼈고, 저도 누군가를 품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선불리 단죄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것은 저의 소명처럼 느껴졌고, 그런 의미에서 교정사목에 배정된 것은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명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겠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실습을 시작한 저는, 실습 첫 주부터 제 안에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담장 안의 사람들에게 담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된 출소자 형제님들과 사형을 선고받은 최고수 형제님들을 첫 주에 처음 뵈고 나서, 여느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서 흠칫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담장 안의 사람과 담장 밖 사람의 모습이 같은 것에 대해 느낀 놀람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오던 편견에 대한 방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안에는 수용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뿌리 깊이 박혀있었고, 그와 다른 현실에 놀란 꼴입니다. 그러한 사고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미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는커녕 좋은 점마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는 혐악하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안에서 편견을 발견하고, 잘못된 공식으로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의 교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듯하지만, 우리는 성인들이 끝없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 성화 되었음을 압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하였습니다. 죄인 중의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줄곧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할 정도로 ‘예수님 바라기’가 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있는가 하면, 아우구스티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등 죄를 일삼다가도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느님께 투신하여 변화한 성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없다면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지상을 순례하는 우리 삶의 의미는 사라지고 하느님의 은총도 무용한 것이 됩니다. 설령 변화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닮아 변화하려는 마음이 들도록 서로 북돋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정사목은 교회의 사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갇히고 외면받는 곳까지 찾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듯이, 갇힌 이들에게는 찾아와서 하느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께서서는 교정사목 봉사는 시간 봉사이며 교정시설에 찾아가는 것부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담장 안팎 어디에나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교도소만 빼고.’는 완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장 안의 사람들도 하느님의 자녀임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사목에서 실습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수용자뿐만 아니라 출소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사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한쪽에 치중하면 한쪽은 소외되는 시소 따위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회유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외면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몸으로 죄인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무참히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때로는 내 아픔은 아픈 것도 아니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의 무리는 한 사람의 회개에 기뻐하듯 한 사람의 아픔에는 함께 울기 때문입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느님께서서는 강제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와 머무르시며 원수에게 받은 상처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듬음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원망스럽고 나의 아픔은 외면받는 것 같아 서럽다가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의 회심에 기뻐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에, 그것을 누구에게서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반성과 통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받은 땅을 디딘 채 순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8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7월 2일(목), 3일(금), 6일(월), 9일(목), 10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국군교도소
- 7월 6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8일(수), 15일(수)~16일(목), 20일(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4기 인성교육
- 7월 15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7월 21일(화)~23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 7월 27일(월)~29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5/16~26/06/15)

2026년 5월~6월에는 김남현 토마스아퀴나스, 김상호, 김현경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자경 글라라, 이순영, 조승현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